

# 1990년대 후반 패션디자인에 반영된 예술의상의 창의성

The Creativity of Art to Wear reflected on Fashion Design in the late 1990s

전용옥(Jeon Yongok)

울산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이 논문은 2002년 울산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서론

2. 예술의상

- 2.1 예술의상의 개념 및 발생
- 2.2 예술의상의 특성

3. 1990년대 후반 패션디자인에 반영된 예술의상의 특성

- 3.1 자연적 특성
- 3.2 풍자와 해학
- 3.3 형태왜곡
- 3.4 전위적 소재

4. 결론

참고 문헌

사진 도판

(要約)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의상이 1990년대 후반 패션디자인의 영감에 어떠한 형태와 방법으로 응용되었는지 분석함으로써 미래 패션디자인의 예술적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었다. 연구목적 을 위해 예술의상의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과 함께 예술 의상과 1990년대 후반 패션디자인 각각에서 보여지는 조형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예술의상의 작가들은 전통적 의상이 지녀왔던 사회 문화적 이미지나 소재, 형태 등의 디자인 요소 들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주관을 새로운 형식 과 내용으로 의상에 자유롭게 표출하였다. 분석결과 예술의상 이 예술의상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급속도로 다변화된 1990 년대 후반의 일반 패션디자인에 적극적으로 응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예술의상의 창의성은 1990년대 후반 패 션디자인의 영감에 네 가지 형태로 반영되었음이 드러났다. 첫째, 자연성, 둘째, 유머와 해학, 셋째, 형태왜곡, 넷째, 전위 적 소재이다. 이는 예술의상의 창의성이 미래 패션디자인에 디자인 영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암시한 다. 예술의상의 실험정신은 일반 패션디자인의 수준과 예술적 질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예술을 현실세계로 그 영역 을 확대시키는 주요 중계자 역할을 하리라 사려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mprove the artistic qualities in the future fashion design by investigating how the art to wear was applied to the inspiration in the modern fashion design in the late 1990s. For this purpose the present paper examined characteristics in art to wear and their impact on modern fashion design in the late 1990s. Distinguished from the traditional costume, art to wear disregarded a fixed concept on design elements such as the socio-cultural images, materials, and forms. The artists in art to wear freely expressed their "selves" and their individuality to their works in a variety of ways. In fashion design in the late 1990s the creative characteristics of art to wear were reflected in four ways: (1) eco-look, (2) humor, (3) deformation, (4) materials.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the creativity of the art to wear can establish the potentials and possibility in modern fashion design, and art to wear can be a crucial mediator in opening art into the real world.

(Key words)

art to wear, eco-look, humor, deformation, materials

## 1. 서론

다변화된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예술 역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예술작가들은 끊임없는 실험정신으로 수많은 창의적인 시도들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예술가들의 시도는 회화나 조각, 공예 등의 전통적으로 분리되어 왔던 예술의 경계를 깨뜨리고 있다. 즉 오늘날 여러 장르의 예술들은 서로 혼합되고 변형되어 그 영역을 구분 짓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섬유예술 분야에서도 일어나 작가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재료나 기법에서 탈피하여 점차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추구하는 작품들을 개발하게 되었다. 즉 자율성을 추구하는 예술관의 변혁에 따라 작가의 주관과 개성을 나타내려는 시도가 펼쳐지고 있다.<sup>1)</sup> 특히 1960년대 말부터 섬유예술 분야에서는 인체를 예술의 매개체로 인식하여 섬유예술과 의상을 결합시키려는 욕구가 일어났다. 또한 그와 시기를 같이하여 미국의 의상계에서도 전통적인 패션 형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형태의 패션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미국의 서부지역에서부터 “예술의상 운동 (Art to Wear Movement)”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sup>2)3)4)</sup>

본고에서는 이러한 예술의상 운동이 예술의상 그 자체에 대한 감상에 그치지 않고 보다 기능적으로 일반 패션디자인에 응용된 점에 주목하였다. 즉 본 연구는 급속도로 다변화되어 가고있는 현대 패션디자인에 있어 예술의상에서 시도되었던 창의성이 패션디자인에 어떠한 형태로 응용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래 패션디자인의 예술적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현대 패션디자인의 범위를 1995년 이후 발표된 작품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는 이 시기에 예술의상에서 시도되었던 창의적 특성들이 일반 패션디자인에 그 어느 때 보다는 많이 등장한 점에 기인하였다.<sup>5)</sup>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문헌을 통하여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또한 국내외에서 전시된 실물작품, 각종 패션 잡지를 통한 사진자료를 그 사례로 제시하였다.

## 2. 예술의상

### 2.1 예술의상의 개념 및 발생

예술의상(Art to Wear)은 미술의상, 의상예술, 의상조각, 섬유조각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어 지고 있다. 아트와 패션 그리고 공예 이 세 가지 특성을 내포하는 예술의상은 회화, 조각, 섬유예술 등의 아트 분야와 패션 디자인 분야의 결합을 뜻하는 것으로 인체를 바탕으로 인체 상에 여러 가지 실험적인 재료들을 사용하여 인체와 예술 재료들과의 조화를 이끄는

예술형태를 의미한다.<sup>6)</sup> 이는 인체를 고려한 입체작품이며 작가와 착용자, 감상자 모두 예술적 공감을 갖기를 추구한다. 따라서 예술의상은 기능적인 면과 장식적 면을 동시에 충족시킨다. 즉 예술의상은 착용 목적일 수도 있으며 보관 목적일 수도 있다.<sup>8)</sup> 이러한 예술의상은 작가의 개인적 표현을 중요시하는 신체장식의 한 형태로서 그 주제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자유분방한 특성을 갖는다. 이것은 단지 작가의 창조물인 것이다. 예술의상을 통하여 작가는 자신의 유일하고 개인적인 것을 유출하여 타인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변형시킨다. 결국 예술의상이 일반의상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는 자유로운 감정의 표현이며 이에 따른 주제의 다양함이다.

예술의상 운동은 고도의 산업화와 대량생산으로 인하여 인간이 몰개성화 되어지는 사회에 반기를 들고 개성을 찾아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이들에 의해 퍼져나갔다. 1960년대 후반 이러한 운동은 섬유예술의 개혁지이며 자유분방한 패션의 중심지인 미국 서부에서부터 일어나 점차 대륙을 건너 패션의 중심지인 뉴욕까지 번져나갔다.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예술의상은 전통적인 패션 관습을 경멸하며 자기주장이 강한 새로운 부류의 소비자들과 수집가들의 힘을 얻어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 운동의 참여자들은 특히 샌프란시스코만 지역과 뉴욕 시에서 활동을 계속하였으며 그 후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sup>9)10)11)</sup> 예술의상은 한국에서도 쉽게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새로운 아트 형태의 빠른 수용으로 섬유와 의상디자인 관련 교수단체들도 서로 연계를 맺어 연이어 예술의상 전시회를 개최하였다.<sup>12)13)</sup>

### 2.2 예술의상의 특성

예술의상에서의 의상제작이란 전통적인 의상의 개념을 수정하여 작가의 생각과 경험 등을 통하여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디자인을 인식하고 해석하여 재창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선행연구<sup>14)15)16)17)</sup> 들은 예술의상의 특성을 전통의상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전통의상은 주제가 없는 반면 예술의상은 주제가 있다. 예술의상의 주제는 자연성을 지닌 원시세계, 토속성, 자연에 대한 동경, 혹은 정치적 비유와

1) 송민수: *The Modern Fabric Art : 현대섬유미술*, 서울: 디자인하우스, 20, (1996).  
2) Dyett, L.: *Art to Wear*, American Craft, October / November, 14-20, (1983).  
3) Druesdow, J.: *Art to Wear*, New York: Abbeville Press, 9, (1986).  
4) 양취경: 비인공방(Wiener Werkstaette)에 형성된 예술의상연구, 복식, 29, 148, (1996).  
5) Searle, K: Conceptual Clothing Flourishes in Korea, *Fiberarts*, 27, 27-29, (2001)  
6) Patterson, S.: *Getting into Art to Wear*, *Fiberarts*, 27, 37-40, (2001).

7) Fruchtman, R.: *Art to Where ?*, *Fiberarts magazine*, Vol.17, No.2, 35, (1990).  
8) Fruchtman, R.: *op. cit.*, 35.  
9) Stabb, J. A. C.: *Revitalizing Wearable Art*, *Surface Design*, 22, 13-16, (1998).  
10) Dyett, L.: *op. cit.*, 14.  
11) 이성순: 의상예술 전시회를 보고나서, 멋, 2, 121, (1985).  
12) Searle, K.: *op. cit.*, 27-29.  
13) Axelrod, A.: *Art to Wear*, Cross River Press Ltd., 67, (1986).  
14) Associate Curator in Charge: *The Costume Institute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5) 양취경: 유행의상과 예술의상의 조형적 특성 비교: 미래주의 예술의상을 중심으로, 복식, 38, 62, (1998).  
16) 박순천: 현대 미술의상에 관한 연구: 광주비엔날레 국제 미술의상전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논문집, 17, 838, (1995).  
17) 김정혜: 예술의상에 관한 연구(I): 의상조각 (Clothing-Sculpture)을 중심으로, 복식, 38, 163-164, (1998).

풍자, 사회적 주제, 작가의 자전적 내용, 그래픽 이미지, 삶과 죽음 등 무한하다. 전통의상은 개성보다는 외부적 상황과 용무가 중요시되나 예술의상에서는 개인의 감정과 개성이 중요시된다. 전통의상에서는 디자이너의 감정이입이 없는 반면 예술의상에서는 작가의 감정이나 정신적 전달이 중요시된다. 또한 전통의상은 유행에 따른 적용으로 직물의 색채나 소재, 실루엣 등의 계절감각이 중요한 반면 예술의상은 패션디자인의 기초 과정에 작가의 심정과 개성, 사상, 독창성 등이 첨가되는 작가의 창의성이 중요시된다.

이처럼 예술의상의 창작활동은 작가에 따라 고유의 사상이나 감정, 철학 등이 의상에 표출되는 것이 가능하며 따라서 예술의상은 작가의 내적 세계와 불가해한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물리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sup>18)</sup> 이와 같이 예술의상은 작가의 주관이나 재료선택 그리고 고유의 기법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결국 예술의상이 일반의상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성은 다양한 창의성을 통한 자유로운 자아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sup>19)</sup> 본고에서는 진 드로세도(Jean L. Druessedow)<sup>20)</sup>가 제시한 예술의상의 특성들 중 1990년대 후반 패션디자인에 응용된 것으로 보여지는 네 가지 대표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들을 그 예로 제시하여 논하고자 한다. 즉 예술의상의 특성인 주제의 다양함을 첫째, 자연적 특성과 둘째, 풍자와 해학으로 예시하고 셋째, 형성과정에서 형태왜곡을 그리고 넷째, 생산 방법에서 전위적 소재를 예시하였다.

### 3. 1990년대 후반 패션디자인에 반영된 예술의상의 특성

#### 3-1. 자연적 특성

자연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의 것이며 예로부터 각종 예술분야의 주제로써 디자인 영감을 불러 일으켜왔다. 예술의상에서도 작가들은 동물, 식물, 광물, 산, 바다, 하늘 등의 디자인을 작품에 활용하고 자연을 상징하는 색상과 색 배합, 문양 등을 사용함으로써 자연회귀의 갈망을 나타내기도 한다.<sup>21)</sup> 자연을 주제로 한 여러 예술의상 작품들 중 <사진1><sup>22)</sup>은 자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소재인 나무를 주제로 제작한 "The Spirit of a Tree"이다. 이 작품에 대하여 작가는 "마른 나무에 생명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사진2><sup>23)</sup>는 "주의 꽃(Lord's Flower)"이란 제목의 작품이다. 작품에서 작가는 꽃과 인체를 주제로 작품을 제작하여 꽃을 통하여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체를 결합하여 생명력을 전달 시켰다.

이는 일반 패션 디자인의 디자인 영감에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1990년대 부각된 환경문제는 디자이너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쳐, 환경을 고려하는 에콜로지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디자이너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패션에서는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것이 아름답다는 의식이 만연했으며 자연주의적 의상과 관련된 기업활동과 제품의 이미지가 부각되었다.<sup>24)25)</sup> 즉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연과 천원에 대한 향수와 원시적 이미지를 작품에 품고 있어 자연과 의상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사진3><sup>26)</sup>은 예술의상 작품으로서 자연물 소재 중에서도 주로 새의 깃털을 사용하여 미를 창출하였다. 예로부터 깃털은 자유와 비상을 상징하는 것으로써 본 작품 속에 깃털은 부드러운 인공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그리고 구속되지 않는 해방감을 나타낸다. 작품<사진3>은 낚시 그물을 깃털과 함께 사용하여 조화를 꾀함으로써 원시 자연의 이미지를 한층 돋구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1990년대 후반 패션디자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진4><sup>27)</sup>는 패션디자이너의 작품으로 새의 깃털을 사용하였는데 그물모양으로 짠 짧은 망사조각과 깃털과의 조화는 단연 작품<사진3>을 연상케 한다. 단 작품<사진3>에 비하여 작품<사진4>는 보다 실용적인 면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작품<사진3>과 같이 몸 위에 걸려지는 형태가 아닌 상의와 하의가 분리되고 몸에 밀착되는 스타일이며 하의는 일반 옷감을 사용함으로써 기능적인 면이 보다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술의상 작품<사진5><sup>28)</sup> 역시 새의 깃털과 그물 그리고 비즈로 장식한 것이다. 이 작품 역시 깃털과 망사를 이용하여 인체를 아름답게 감싸고 있다. 깃털은 부드러움과 가벼움으로 인하여 현대 실용 패션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패션디자인 작품 <사진6><sup>29)</sup>에서는 새의 모양을 최대한 유지하며 어깨 부위를 덮어 장식하였다. 이 작품의 예술의상 작품과의 차이점은 어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활동성을 고려하여 움직임에 지장이 없도록 디자인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는 패션 디자인 작품<사진7><sup>30)</sup>에서도 볼 수 있다. <사진7>은 오직 깃털만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으나 그 형태에 있어서 일반 의상의 형태를 띠어서 소재와 이미지는 예술의상 작품<사진3>과 <사진5>를 연상시키나 이에 실용의상이란 점을 감안하여 기능적인 면이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2. 풍자와 해학

예술의상에서 작가는 종종 사회적 문제나 혼란을 비유적, 암시적인 기법으로 표현한다. 사회적 주제를 개인 내면으로 끌어들이어 해학과 풍자로 표출시킨다.<sup>31)</sup> 예술의상 작품<사진8>에서는 핵폭발 전쟁의 위기에 몰려있는 지구의 현실을 인체상에 묘사하고 있다. 폭격을 맞은 도시의 모습과 인간의 죽음,

18) Schafner, J.: *Art to Wear*. New York: Abbeville Press, 12, (1986).

19) 이혜주: 미술의상 운동의 개념 정립을 위한 이론적 연구, 가정문화논총, 중앙대학교 가정문화연구소, 2(48), (1988).

20) Curator in Charge. the Kent State University Museum.

21) 이선주: 포스트모더니즘의 패션경향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 (1993).

22) YI-JEN, T.: The Spirit of a Tree, *Cosume Exhibition, ICA*, 153, (1998).

23) 진경옥: 주의 꽃(LORD'S FLOWER), 진경옥, (1999).

24) 한소원, 김영인: 1990년대 초반 복식유행에 나타난 에콜로지 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23, 298, (1999).

25) 정연자: 현대 패션에 표현된 에콜로지에 관한 연구, 복식, 30, 227-235, (1996).

26) Schafner, J.: op. cit., 139.

27) Buool, T.: *Vogue Couture, Settembre*, 135, (1999).

28) Schafner, J.: op. cit., 141.

29) Dreyfuss, J.: *Vogue Couture, Settembre*, 57, (1999)

30) Kayek, D.: *Collezioni Pre-t-porter, 47 A/W*, 145, (1995).

31) 이혜주: op. cit., 51.

폐허 등의 장면을 나열하고 폭발연기가 인간의 몸을 감싸는 모습을 통해 작가는 핵과 전쟁의 비극을 해학적으로 풍자하였다. 이러한 사회 고발적인 형식의 예술의상 작품은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발견된다. 작품<사진9> “다큐 어느 한 예술가의 보고서”에서 작가는 제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술가의 시각에서 본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사진별로 제시하고 있다. 지구에서 발생하는 갖은 장면들을 모아 보고하듯 의상의 하의에 장식한 본 작품에서 작가의 위트와 기지를 엿볼 수 있다. 작품<사진10><sup>32)</sup>은 “아직도 도시에 살고 계십니까?”란 제목으로 사회적 주제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본 작품을 통하여 사람들이 대도시의 환경 즉 과밀인구, 교통체증, 매연, 과도한 스트레스 등에 의해 육체적, 심리적으로 압박되며 때때로 사람들은 그러한 환경에 적응할 수 없고, 인내력을 한계를 드러냄을 보여준다. 이처럼 작품<사진10>은 인간존재의 실존적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다. 풍자와 익살의 또 하나의 예술의상의 예로 <사진11><sup>33)</sup>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무한한 은하 세계를 표현하였다. 그 중 특히 인간의 존재를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은하계의 행성들 중에 인간은 지구라는 한 행성 속에서 중력의 힘에 휩쓸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 있을 뿐이다. 또한 더욱 해학적인 것은 디스크 안에 표현된 사람의 모습이 극히 대중적인 만화의 한 컷으로 표현되어 작가의 기발한 유머감각을 느끼게 한다.

예술의상 분야에서 시도되었던 해학적 특성의 경향은 물론 1990년대 후반 패션디자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해학적 패션의 대표적인 디자이너인 카스텔마작(Castelbajac)은 작품<사진12><sup>34)</sup>에서 세계 아동들이 선호하였던 TV 프로그램 “텔레토비(Teletobi)”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장면을 응용하여 드레스를 제작하였다. 이처럼 그는 대중적이고 인간미 있는 의상을 자주 발표하였다. 또 다른 패션디자인 작품으로서 <사진13><sup>35)</sup>은 고화(古畵)를 재현하여 디자인함으로써 모방양식을 통해 익살맞은 유머를 창출해 내었다. 이러한 풍자와 해학은 예술의상 작품<사진10, 11>의 표현방식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 3-3. 형태왜곡

예술의상에서는 전통의상에서 불가능했던 인체 형태의 변형이 가능하다. 즉 예술의상에서 인체는 조각의 기본 틀이 된다.<sup>36)</sup> 작가는 인체를 기초로 하여 인체 상에 다양한 재료와 자신의 고유 테크닉을 동원해 새로운 조각품을 창조해 낸다. 이 과정에서 작가의 의도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인체의 형태는 때로 무시되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형태가 창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예술의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예술의상에서 인체의 형태는 왜곡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sup>37)</sup>

작품<사진14><sup>38)</sup>에서처럼 예술의상은 의상형태의 조형미에

중점을 두고 사람이 입어야 한다는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작가의 순수한 표현성과 실험성을 강도 높게 표출한다.<sup>39)</sup> 입는다는 형태는 있으나 조각과도 같이 감상용으로 기능하는 입을 수 없는 옷의 형태로서 예술의상은 작품에 따라서는 벽걸이와도 같은 감상용 작품이 되기도 한다.<sup>40)</sup>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sup>41)</sup>와 같은 전위적인 디자이너는 종이로 만든 옷과 같은 예술의상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작품<사진15><sup>43)</sup>에서 그는 주름을 이용하여 소재 표면의 질감을 형성할 뿐 아니라 추상적인 형태와 동시에 의상으로써의 기능을 부여하였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예술의상의 창의성이 현대 패션 디자인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훌륭한 예가 될 수 있다.

예술의상에서는 의상의 형태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인체의 형태를 무시하고 의상 자체만으로 하나의 조형을 창출하기도 한다. 예술의상 작품<사진16><sup>44)</sup>은 인체의 모양을 무시하고 조형의 외곽선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좌측 어깨부분은 인체의 굴곡을 강조하고 하의부분은 인체의 한계를 벗어나 작가의 창작 형태로 공간미를 창출하였다. 예술의상 작품<사진17> 역시 인체의 형태를 왜곡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공간미를 창출하였다. 형태미를 강조한 본 작품은 주름 천을 사용하여 곡선과 직선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의상과 인체와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예술의상의 이러한 형태왜곡의 경향은 1990년대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작품<사진18><sup>45)</sup>은 몇 가지 옷을 부분, 부분 조합하여 겹쳐 입은 듯한 느낌을 주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을 일으키게 한다. 또한 작품<사진19><sup>46)</sup>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자유로운 형태의 기하학적인 모습의 의상은 예술의상 작품<사진16, 17>을 연상케 한다. 즉 그 형태에 있어서 인체에 맞기보다는 인체의 형태에서 벗어나 디자이너가 창조한 새로운 형태를 선보였다. 작품<사진20><sup>47)</sup>은 또 다른 예로써 한쪽 어깨와 골반 부분을 강조하여 공간감을 더해 줌으로써 공간과 인체의 조화에 디자인 포인트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작품<사진19, 20>과 같은 1990년대 후반 일반 패션은 작품<사진16, 17>과 같은 예술의상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일반 패션 디자인과 예술의상 디자인에서의 차이점이라면 예술의상에서는 형태왜곡이 무한정 하여 때로는 착의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일반 패션에서의 형태왜곡은 착의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 3-4. 전위적 소재

39) 배천범: 패션아트전(Fashion Art Festival), 예술의 전당, 26, (1979).

40) 이신자: '88 현대 미술의상전', 월간공예, 12, 72, (1988).

41) 이성순: 미술의상(ART TO WEAR), 국민대학교조형논총, 6, 310-311, (1987).

42) 김지희: 현대미술의상에 관한 연구, 상지전문대 논문집, 12-13, (1995).

43) Holborn, M.: ISSEY MIYAKE, Taschen, 82, (1995).

44) 전용옥: 어우러짐, 98 Fashion Art Exhibition F&CA, 80, (1998).

45) TBF Collections, Pret-A-Porter Paris New Age & Tokyo, Seoul Collection, A/W, 157, (1999).

46) Ferre, G.: Gap-D, 2, A/W, 306, (1999).

47) Milner, D.: Collections. Pret-A-porter, A/W, 186, (1999).

32) 이숙희: 아직도 도시에 살고 계십니까?(Do you still live in a city?), KSF D 패션디자인전, 유머, (1996).

22) Schafner J.: op. cit., 178.

34) Castelbajac, J. D.: Collections, Pret-A-Porter, A/W, 116, (1999).

35) Ibid., 116.

36) LeGaspi, L.: Style : The Nontraditional Wearables, Craft Horizons, October, 58, (1978).

37) Patterson, S.: op. cit., 37-40.

38) 배천범: 영원의 정원, Fashion Art Exhibition, 55, (1998).

예술의상의 창의성은 여러 가지 혼합 재료를 사용한 작품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칼라의 노출, 다양한 재질, 재료 등 예술의상의 소재는 일정한 법칙이나 관례를 따르지 않는다. 작가들은 개인의 주물과도 같은 이러한 작품들을 가장 완숙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소재를 선택함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sup>48)</sup> 작가들은 인체를 캔버스로 여기고 마치 그림을 그리듯 다양한 재료로 예술의상을 꾸며 나간다. 어떠한 재료라도 작가의 아이디어에 따라 생명력 있는 작품으로 완성된다. 이러한 예술의상의 소재는 직물, 실, 부직포, 나뭇잎, 종이, 나무, 가죽, 깃털, 돌, 금속 등의 천연재료뿐 아니라 유리, 병 뚜껑, 구슬, 단추, 지퍼 등의 일용잡화와 플라스틱, 스티로폼, 아크릴 등 공산품도 포함되어 그 범위가 무궁무진하다.<sup>49)</sup> 예를 들어 작품<사진21>은 경질비닐과 씨캔스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작품<사진22><sup>50)</sup>는 숯가루 입힌 스폰지, 폴리우레탄-폼, 톱밥 등을 사용하여 인체 선을 형성하는 조형성 있는 의상을 이루었다. 이처럼 예술의상의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는 전위적 소재의 사용, 즉 소재의 창의성이라 할 수 있다. 예술의상의 소재는 섬유뿐만 아니라 그 밖의 어떤 물질도 의상의 소재가 될 수 있으며 혹은 주변의 일상용품까지도 그 소재가 될 수 있다.<sup>51)</sup>

예술의상 작품<사진23><sup>52)</sup>은 “고대를 연다”란 작품으로 여러 가지 단추와 동선을 소재로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여러 가지 단추들을 재배치, 재조합 함으로써 일반의상에서 단추의 역할인 여밈의 역할이 아닌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는 요소로 적용 시켰다. 즉 단추들은 맛살블라쥬되어 독특한 질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여러 가지 단추를 사용하여 맛살블라쥬한 형태의 디자인은 1990년대 후반패션에서도 보여진다. 작품<사진24><sup>53)</sup>는 패션 디자이너 갈리아노(Galliano)의 작품으로서 여러 종류의 금단추가 재킷과 팬츠의 일부분을 장식하고 있다. 의상 위에 맛살블라쥬된 단추들은 작품<사진23> 예술의상의 단추들과 같이 새롭고 독특한 질감표현과 이미지창조의 역할을 하였다.

최근 5년간의 '95, 97광주 비엔날레 국제 미술의상전, '96 바다 워크(Body Work), '97, '98 한국 복식학회 의상전, '98, '99 패션 아트전(Fashion Art Exhibition)을 참고하여 국내 예술의상의 소재를 분석한 결과 천연소재와 합성섬유 외에 작가 개인의 창작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양식의 대두로서 자연주의적 생태계를 연상시키는데 효과적인 창조지와 닥종이 등을 많은 작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는 상반되게 미래주의적 사이버세계를 연상시키는 소재로서 비닐, 에나멜 동선, 철선, 금속 등의 사용이 두드러졌다.<sup>54)</sup> 예

를 들어 예술의상 작품<사진25><sup>55)</sup>에서 작가는 금속성의 구슬들을 엮어 인체를 감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소재의 다양성은 1990년대 후반 패션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전위적 소재는 이미 1960년대부터 패션에 등장하였으나 1990년대 패션에서는 옷이 편하게 입는다는 기능보다는 하나의 작품으로써 조형성을 강조한 다채로운 소재와 그 소재의 변형을 통해 복식의 예술성이 강조된 작품이 다수 발표되었다.<sup>56)</sup> 작품<사진26><sup>57)</sup>은 얇은 나무판을 사용하여 제작한 드레스이다. 본 드레스는 자연 그대로의 나뭇결이 드러나는 나무판을 이용하여 최대한 그 형태가 유지되면서 인체에 맞도록 디자인하였다. 또 다른 예로 작품<사진27><sup>58)</sup>은 금속판을 사용하여 디자인 된 것으로서 옷으로 만들기에 부적합한 금속을 인체와 같은 모양으로 주물을 제작하여 고정시킴으로써 활동 가능하도록 하였다. 금속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금속성의 견고함과 인체의 굴곡이 드러나는 부드러운의 상반된 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소재를 추구하는 디자이너의 실험정신을 엿 볼 수 있다. 이는 바로 예술의상에서의 소재의 무한한 다양성을 추구하는 성향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 4. 결론

예술은 더 이상 예술가 자신들이나 소수의 고급화 되어있는 개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며 대중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 이는 예술의 영역 확대와 그 분야의 모호성을 의미하는 바 예술 분야의 범위가 의상계에 까지 다름을 의미한다. 예술의상은 종전에 의상이 지니고 왔던 사회 문화적 이미지나 소재, 형태 등의 디자인 요소들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고 작가의 주관의 의상으로써 표출된다. 이는 인체를 고려한 입체작품이며 작가와 착용자, 감상자 모두 예술적 공감을 갖기를 추구한다. 예술의상의 이러한 특성은 1990년대 후반 패션디자인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예술의상은 1990년대 후반 패션 세계를 예술적으로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더욱 도전적이고 대담해진 스타일로 이끌었다. 즉 1990년대 후반 패션 디자인에 조명된 예술의상의 특성은 다음의 네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자연적 특성이다. 자연은 예로부터 각종 예술분야의 주제로써 디자인 영감을 불러 일으켜 왔다. 예술의상에서도 작가들은 동물, 식물, 광물, 산, 바다, 하늘 등의 디자인을 작품에 활용하여 자연을 상징하는 색상과 색 배합, 문양을 사용함으로써 자연회귀의 갈망을 나타낸다. 이러한 자연을 주제로 한 예술의상은 1990년대 후반 패션에 유행하였던 자연주의 의상, 즉 에콜로지 이미지의 의상 디자인에 디자인 소스를 제공해 주었다. 즉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연과 전원에 대한 향수와 원시적 이미지를 작품에 품고 있어 자연과 의상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둘째, 풍자와 해학의 특성이다. 예술의상에서 작가

48) Schafner, J.: op. cit., 58.

49) 배만실: 현대 의상예술의 발자취와 성과, 멋, 1, 248, (1985).

50) 김소현: Work I, 한국복식학회 초대의상전, 62, (1997).

51) 배영숙: Assemblage로 표현된 미술의상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5-46, (1994).

52) 간문자: 고대를 연다, 한국복식학회 초대의상전, 51, (1997).

53) Galliano, G.: *Collezioni Donna, Pret-A-Porter, A/W*, 331, (1999).

54) 강숙녀, 김혜정: 20세기말에 보여진 예술의상의 소재에 관한 연구, 복식, 48, 111, (1999).

55) 이상봉: 696 NO. IV 24x29, *FASHION ART EXHIBITION*, 59, (1999).

56) 이효진: 현대 패션 디자인 소재에 표현된 예술적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 32, 168, (1997).

57) Macdonald, J.: *Gap-D, 2, A/W*, 107, (1999).

58) Maqueen, A.: *Collections, Pret-A-Porter, A/W*, 134, (1999).

는 종종 사회적 주제를 개인 내면으로 끌어들이며 해학과 풍자로 표출시킨다. 예술의상 작품들 중 많은 작품들이 해학적 특성, 즉 유머, 풍자, 익살 등의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유머의 표현 방식은 작가에 따라 새롭게 기발하다. 이러한 유머와 해학적인 예술의상 역시 1990년대 후반 패션디자인에 디자인 영감을 제공해 주었다. 셋째, 형태왜곡의 특성이다. 형태왜곡이란 패션 디자인에 있어 인체에 맞아야 한다는 제한점에서 벗어나 작가의 창의적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하려는 것이다. 즉 예술의상에서는 의상을 하나의 조각이라 생각하고 인체를 감싸는 조형물로써 인체의 활동성보다는 작가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예술의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예술의상에서 인체의 형태는 왜곡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형태왜곡의 경향은 1990년대 후반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의상 전체나 의상을 구성하는 부분 부분의 크기를 상식에서 벗어나 부조화를 이루게 하기도 한다. 넷째, 전위적 소재의 특성이다. 예술의상의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는 소재의 창의성을 들 수 있다. 예술의상에서 작가는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재선택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작가의 개성을 무한정 펼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예술의상의 소재는 직물, 실, 부직포, 나뭇잎, 종이, 나무, 가죽, 깃털, 돌, 금속 등의 천연재료뿐 아니라 유리, 병 뚜껑, 구슬, 단추, 지퍼 등의 일용잡화와 플라스틱, 스티로폼, 아크릴 등 공산품도 포함되어 그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소재의 창의성을 나타내려는 시도는 1990년대 후반 패션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섬유 외에 작가 개인의 창작 세계를 표현하고자 자연주의적 생태계를 연상시키는데 효과적인 종이나 나무, 혹은 이와는 상반되게 미래주의적 사이버세계를 연상시키는 소재로서 비닐, 아크릴, 에나멜 등선, 철선, 금속 등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예술의상은 인체를 바탕으로 그 예술적 창작 활동을 진행시키며 인체와 결합하였을 때 그 조형적 아름다움을 불러일으킨다. 이 점은 예술의상이 1990년대 후반 패션디자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요인이며 앞으로 미래의 패션디자인에도 그 디자인 영감을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잠재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의상계에서는 일반패션계에 그리고 일반패션계에서는 예술의상계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예술의상계에서는 지금까지 예술의상은 조형예술의 개념으로서 작가의 감정이 중시되며 주로 전시회를 통해 작품을 선보였다. 일반 대중과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패션쇼나 홍보활동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일반대중과 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 입장에서 입을 수 있는 옷으로서의 기능적인면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일반패션계에서는 예술의상에서 보여주었던 수공예에 기초를 두고 깃털, 나무, 금속, 비닐, 펠트 등 다양한 소재를 응용하여 의복재료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고도의 과학기술의 진보로 예술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신소재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형태면에서도 보수적이며 식상한 패턴에서 탈피하여 미적이며 창의적인 조형예술로서의 패턴 개발이 요구된다. 예술의상의 실험정신이 일반 패션 디자인에 반영될 때 그 예술적 질을 향상시키는 중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Dyett, L.: Art to Wear, American Craft, October / November, (1983).
- Druedow, J.: Art to Wear, New York: Abbeville Press, (1986).
- Fruchtman, R.: Art to Where ?, Fiberarts magazine, Vol.17, No.2, (1990).
- Stabb, J. A. C.: Revitalizing Wearable Art, Surface Design, 22, (1998).
- Searle, K.: Conceptual Clothing Flourishes in Korea, Fiberarts, 27, (2001)
- Axelrod, A.: Art to Wear, Cross River Press Ltd., (1986).
- Associate Curator in Charge: The Costume Institute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Schafner, J.: Art to Wear. New York: Abbeville Press, (1986).
- LeGaspi, L.: Style : The Nontraditional Wearables, Craft Horizons, October, (1978).
- Patterson, S.: Getting into Art to Wear, Fiberarts, 27, (2001).
- Holborn, M.: ISSEY MIYAKE, Taschen, (1995).
- 송변수: The Modern Fabric Art, 서울: 디자인하우스, (1996).
- 양취경: 비인공방에 형성된 예술의상연구, 복식, 29, (1996).
- 이성순: 의상예술 전시회를 보고나서, 멋, 2, (1985).
- 양취경: 유행의상과 예술의상의 조형적 특성 비교: 미래주의 예술의상을 중심으로, 복식, 38, 62, (1998).
- 박순천: 현대 미술의상에 관한 연구: 광주비엔날레 국제 미술의상전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논문집, 17, (1995).
- 김정혜: 예술의상에 관한 연구(I): 의상조각 (Clothing-Sculpture)을 중심으로, 복식, 38, (1998).
- 이혜주: 미술의상 운동의 개념 정립을 위한 이론적 연구, 가정문화논총, 중앙대학교 가정문화연구소, 2, (1988).
- 한소원, 김영인: 1990년대 초반 복식유행에 나타난 에로로지 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23, (1999).
- 정연자: 현대 패션에 표현된 에로로지에 관한 연구, 복식, 30, (1996).
- 이신자: '88 현대 미술의상전', 월간공예, 12, (1988).
- 이성순: 미술의상(ART TO WEAR), 국민대학교조형논총, 6, (1987).
- 김지희: 현대미술의상에 관한 연구, 상지전문대 논문집, (1995).
- 배만실: 현대 의상예술의 발자취와 성과, 멋, 1, (1985).
- 강숙녀, 김혜정: 20세기말에 보여진 예술의상의 소재에 관한 연구, 복식, 48,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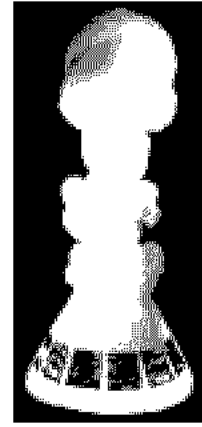
<사진 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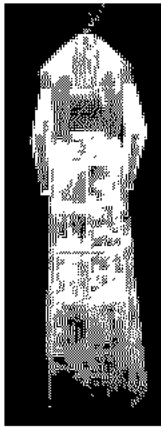
<사진1> 이젠(TSAI, YI JEN),  
"The Spirit of a Tree",  
「COSTUME EXHIBITION」, ICA,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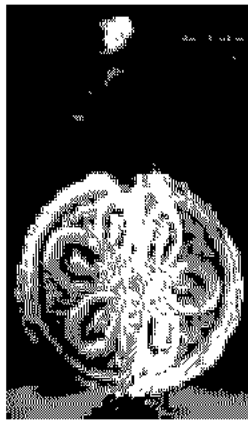
<사진2> 진경옥,  
"주의 꽃(LORD'S FLOWER)",  
「진경옥」, 1999.



<사진8> 박광미, "Arrogance",  
「COSTUME EXHIBITION」,  
ICA, 1998.



<사진9> 최복호,  
"다큐 어느 한 예술가의 보고서",  
「섬유염색」, 교학연구사, 1999, p.138



<사진14> 배천범,  
"영원의 정원(Garden of Spirit II)",  
「FASHION ART EXHIBITION」, KF&CA, 1998 p.55



<사진15> 이세이 미야케 (ISSEY MIYAKE), "Cicada Pleats",  
「ISSEY MIYAKE」,  
Taschen, 1989, p.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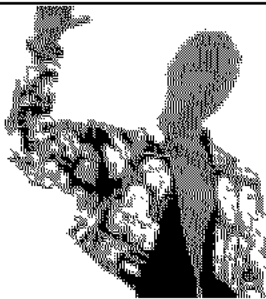



<사진21> 전용옥, "POP ICE",  
「COSTUME EXHIBITION」, ICA, 1998, p.90



<사진22> 김소현, "Work",  
「한국복식학최초대의상전」, KSC, 1997, p.62



예술의상	1990년대 후반 패션디자인		
 <p data-bbox="292 566 608 629">&lt;사진3&gt; 라울 스피겔 (Raoul Spiegel), 「Art to Wear」, Abbville, p.139</p>	 <p data-bbox="662 831 877 954">&lt;사진4&gt; 보콜(Tessuti Bucol), 「Vogue Couture. ALTA MODA」, Settembre, 1999</p>	 <p data-bbox="887 831 1090 954">&lt;사진6&gt; 드레이푸스 (Jerome Dreyfuss), 「Vogue Couture. Alta Moda」, Settembre, 1999</p>	 <p data-bbox="1102 831 1318 954">&lt;사진7&gt; 베르디II(Dice Kayek, VIA VERDI II.), 「Collezioni Pre t porter」. N47, A/W, 1995/1996, p.145</p>
 <p data-bbox="292 920 608 978">&lt;사진5&gt; 라울 스피겔 (Raoul Spiegel), 「Art to Wear」, Abbville, p.141</p>			

예술의상	1990년대 후반 패션디자인	
 <p data-bbox="288 1402 730 1464">&lt;사진10&gt; 이숙희, "아직도 도시에 살고 계십니까?", 「KSFd 패션디자인전」, KSFd, 1996</p>	 <p data-bbox="826 1715 1043 1877">&lt;사진12&gt; 카스텔바작(Jean Charies de Castelbajac), 「Collections, Pret A Porter」, A/W, 1999/2000, p.116</p>	 <p data-bbox="1086 1715 1303 1877">&lt;사진13&gt; 카스텔바작(Jean Charies de Castelbajac), 「Collections, Pret A Porter」, A/W, 1999/2000, p.116</p>
 <p data-bbox="248 1827 799 1890">&lt;사진11&gt; 제미 서머스(Jamie Summers), 「Art to Wear」, Abbville, p.178</p>		

예술의상		1990년대 후반 패션디자인		
				
<p>&lt;사진16&gt; 전용옥, "어우러짐", 「'98 Fashion Art Exhibition」, F&amp;CA, 1998, p.80</p>	<p>&lt;사진17&gt; 김영인, "The Fire Flower", 「COSTUME EXHIBITION」, ICA, 1998,</p>	<p>&lt;사진18&gt; 티비에프 (TBF), 「Collections Pret A Porter Paris New Age &amp; Tokyo, Seoul Collection」, A/W, 1999/2000, p.157</p>	<p>&lt;사진19&gt; 장프렌코 페레 (Gianfranco Ferre), 「Gap D」, Vol. 2, A/W, 1999/2000, p.306</p>	<p>&lt;사진20&gt; 밀너(Deborah Milner), 「Collections. Pret A porter」, A/W, 1999/2000, p.186</p>

예술의상		1990년대 후반 패션디자인		
				
<p>&lt;사진23&gt; 간문자, "고대를 연다", 「한국복식학회 초대 의상전」, KSC, 1997, p.51</p>	<p>&lt;사진25&gt; 이상봉, "696 NO. IV = 24x29", 「FASHION ART EXHIBITION」, KF&amp;CA, 1999,</p>	<p>&lt;사진24&gt; 존 갈리아노 (Gohn Galliano), 「Collezioni Donna, Pret A Porter」, A/W, N.58, p.331</p>	<p>&lt;사진26&gt; 줄리안 맥도날드 (Julien Macdonald), 「Gap D」, Vol. 2, 1999/2000, A/W p.107</p>	<p>&lt;사진27&gt; 알렉산더 맥퀸 (Alexander Maqueen), 「Collections. Pret A Porter」, A/W, 1999/2000, p.134</p>